

<2025년도 2월과 3월에 드리는 말라위 선교편지>

참으로 바쁜 2,3월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임현수목사님과 TMTTC 방문을 통하여 저희 Light Discipleship Mission의 전인적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다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말라위 상황



요즘의 말라위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총기강도행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중국인과 현지인이 낀 불법 무기류를 판매하려다 경찰에서 10여정의 무기들을 압수했다고 하고 여러 곳에서 들리는 수십명의 떼 강도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50KG옥수수 한가마가 아무리 비싸도 5-6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과차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욱이 남쪽지방에서는 15만과차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달러가 폭등하여 상인들이 거의 매일 폭등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리는 듯하더니 또 다시 달러가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는 매일 치솟아 오히려 한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물가상승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말라위는 여전히 세계 Worst Country 중의 하나인게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3일(일당1,500과차)을 일해야 겨우 빵한개(4,100과차)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 거의 물가로 폭동을 일으킨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계속 물가 폭등에 따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도 9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 TMTc 단기선교팀 방문



TMTc를 이끌고 계시는 임현수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TMTc 14명의 팀원들이 말라위를 2주 일정으로 오셨습니다. 전국 국전에서 대상을 차지하신 김정애선교사님은 주야를 벽화사역에 전념하셔서 3개의 대형벽화를 완성하였고 재봉사역팀은 간단한 옷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방, 원피스를 가르쳐 주어 수료자들에게 TMTc 명의의 수료증까지 나눠 주었다.

그리고 미션의 꽃인 어린이 사역은 구름같이 몰려들어 그동안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했었는데 250-30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망고 바나나 애플게임과 아울러 대형 공을 이용한 게임도 하여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말라위 최대 TV방송사인 ZODIAC Journalist와 African Bible College 방송국 기자의 장시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임현수목사님께서 인터뷰를 잘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16명이나 되는 대형 팀원을 위해 음식을 끼마다 준비해주신 정실장님(?)의 맛갈스런 식사 준비에 모든 팀원들이 이곳까지 오셔서 오히려 살이 찌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꽃인 길거리 복음전도 집회에서는 모두가 말라위의 현지인들과 한 팀이 되어 복음의 갈증을 느끼고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태권도 격파 시범을 할 때 마다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관심을 더 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하루 남겨두고 솜씨 좋은 이선교사의 기술로 6개의 피크닉 테이블과 두개의 책장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두전도사님의 청소년 성교육과 아울러 복음 중점 훈련은 너무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TMTc 선교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팀을 이끌고 오신 임목사님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이 한국에서 출발하시기 전부터 모든 분들이 6끼씩 금식을 하여 주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을 맡아 주신 유진 자매님께도 감사드리고 팀을 이끌어 주신 김영숙권사님과 홍교수님, 그리고 오국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 차량 구입에 대하여



TMTc 선교팀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동안 어거지로 빌리지에 끌고 다녔던 차량이 또 다시 고장이 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던 차량은 빌리지를 우기때에도 잘 다닐 수 있는 10년된 픽업트럭입니다. 차량가격은 us 30,000-35,000 입니다.

그동안 몇 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에도 너무 비싸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느 후원자가 5000불, 만불씩 몇분이 후원하시면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면서 10,000불 후원의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신 몇몇 분께 다시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의 차량은 우리의 복음의 발입니다.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샬롬

- 앞 못 보는 랑기토니를 생각하며



며칠 전에는 랑기토니가 다니고 있는 Blind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랑기토니가 튀어나온 눈이 너무 아파서 학교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안과를 데리고 가서 검진을 받았을 당시에 그대로 놔두면 평생 통증이 심해 적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말라위 기술로는 전신마비를 해야 하는 관계와 수술의 한계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말라위 선교 초창기였는데 2-3년만 빨리 왔으면 눈을 하나 살릴 수도 있다고 하여 주님과 랑기토니에게 너무 죄송하였습니다.

지금 랑기토니와 관련하여 몇 분이 집중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잘 인도되어져서 랑기토니가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백 채 집 짓기 사역



일백채 집짓기 사역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사역이 현재 30채를 완료하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TMTC사역팀을 이끌고 오신 임현수목사님과 팀원들께서 몇 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3개월 사이에 10여채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는 우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4월 중순부터 다시 집짓기 사역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 집짓기 사역을 하는 중에도 작년에 분다에서 벼락을 맞아 어느 한 분이 희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벼락으로 희생되는 분들이 말라위 전국에 한 해에 약 800여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그 집을 보수하여 새로 집을 지워 주었습니다.

아마 제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고 보람된 사역이 옥수수 구제 사역과 집 짓기 사역일 것입니다. 이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물가가 폭등하여 현지인들의 폭동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와 각 단체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다가오는 6월에 릴롱웨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Youth Ministry Camp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명 장

학금 지급계획)

3. 진행중인 새마을 운동사역 중 100채 집짓기 및 수리사역등 말라위 새마을운동 사역과 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사륜구동 자동차 구입의 재정을 허락하셔서 운송과 옥수수구제를 할 수 있도록 빌리지에 갈 수 있는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5.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 7월에 캐나다 파송교회에서 오는 단기선교팀을 주님께서 주관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 많은 분들이 본인의 후원구좌를 요청하여 부득불 게재합니다.

Keb하나은행 303-04-00004-887 예금주: GMP민경화

기업은행 IBK 630-011647-01-010 민경화

2. **2025년부터는 선교편지를 2개월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